

# 팔도강산

2021. 7. 16. (금)

15:00~17:00

전국 각지 청년 백수들의 먹고, 사는 이야기

니트생활자 × Parti

## ● 공론장 개요

일시 : 2021년 7월 16일(금) 15시~17시

장소 : ZOOM

주최/주관 : 사단법인 니트생활자 X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후원 : OSF

사회 : 사단법인 니트생활자 다지

## ● 발제내용

### 발제1. “여러분, 잘 먹고 계신가요?”

지역별 청년 혹은 청년니트의 식생활 모습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11배달? 직접 요리? 야식? 혼밥? 부모님? 한끼에 쓸 수 있는 비용?)

### 발제2.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지내나요?”

지역별 청년 혹은 청년니트의 일과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 발제3. “돈벌이는 안돼서 쓸모 없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 발제자 소개

**강원** **쌀나무** 바다도 있고 산도 있는 강릉에서, 산이 잘 보이는 농촌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집에서 시내 버스 타고 환승없이 한번에 갈 수 있는 바다에서 산책하며 휴식 할 때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강릉 방문객이 많아져,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사라져 조금은 아쉽습니다.

**경기** **벤자민** 지명은 경기도지만 보통 수도권이라 부르는 내 고장. 버스와 지하철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산과 강 보다 아파트와 사람으로 가득 찬 이 곳에서 잠시 휴식중인 백수들 중 한명으로 여기 와있습니다~

- 경상 포도** 전주와 이름이 헛갈리는 도시 진주에 산다. 논과 밭, 멋진 느티나무가 있는 동네에 살면서 집 안에선 혼자 텃밭거리고 집 밖에선 사람들과 꿈지락 댄다.
- 서울 아꼐** 청년 지원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서울에 도약의 발판을 찾으러 왔다. 하지만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져 백수 기간이 연장되었다. 설상가상 대출 연체 기록으로 청년수당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
- 전라 문어빵** 이름을 열 번쯤 말해줘도 모르는 소도시에서 왔습니다. 소도시의 백수도 과로할 수 있습니다.
- 제주 이조기** 제주바다와 올레길을 마당 삼아 살고 있다. 도서지역 택배비 부담으로 오일장, 지역마켓에서 제주산 식재료를 찾아 먹기 시작했고, 가끔 채집도 한다. 더우면 바다에 들어가고 선선하거나 노을이 멋진 날엔 산책을 나가며 자연과 함께 자연스럽게 살려고 노력 중이다. 백수생활이 아직 어색하다.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길고양이 밥주기이다.
- 충청 비누** 가끔 주변 이웃들에게 상추와 과일을 선물 받는 동네에 살고 있다. 심심할 땐 마실을 나가, 지역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 **발제3. “돈벌이는 안돼서 쓸모 없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이조기** : 처음에 제주에 오고 적응하기가 어려웠는데, 동네를 다니다 보니 공원에 고양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음. 그렇게 고양이 밥을 챙겨 준지 1년이 됨. 고양이 밥을 챙겨 주기 위해 오고 가며 지역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되었고, 가끔 텃밭 작물도 나눠 주시곤 함.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제주도에 와서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 또 바다에서 채집을 종종하기도 하고 바다를 좋아해서 자주 가보면 근방에 있는 쓰레기들을 발견하게 되어 그래서 바다에 갈때마다 쓰레기를 주워 집으로 가져오는 활동을 하고 있음.

- **문어빵** :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포장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요즘 환경에 관심이 생겨 쓰레기를 줄여보고 싶은 생각에 기존 포장지를 재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음. 돈벌이는 안되지만 하는 일 중에 친구 생일을 앞두고 친구들이 평소 좋아했던 영화나 책에 일부를 활용하거나 소품을 준비해서 컨셉을 만들고 이벤트를 기획하는 등의 일을 함. 친구들이 선물의 내용물보다 자신이 좋아하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해줬다는 사실에 고마워함.
- **포도** : 지금 하는 활동 두가지가 있는데, 페미니즘 영화 상영회를 하고 있고, 청년 정책네트워크를 하고 있음. 취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 사람들이 그걸 왜 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내가 일단 재밌어서 하고 있고, 혼자 하는 것 중에는 영화보고 책보는 것.. 나에게는 중요한 활동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시간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내가 재밌고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 좋아서 지속하고 있음.
- **비누** : 충주시 지원금을 받아서 청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충주에 사는 청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주 1회 지역 청년 인터뷰를 하고 있고 지역 소상공인분들과 함께 굿즈를 제작하는 걸 준비하고 있음. 충주에 있으면 집에만 있게 되는 확율이 높을 텐데 지역 활동을 하게 되면서 지역 청년들이나 소상공인들을 만나 네트워크가 더 넓어져서 즐겁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일에 대한 간접체험도 되고 시야가 넓어지는 기회가 됨. 지역에 제빵사를 인터뷰 했는데 , 새벽5시부터 12시간 이상 일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정말 멋있게 느껴 짐.
- **벤자민** : 저는 평상시 어떤 일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가벼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동네 뒷산에 가거나 배드민턴을 하거나 일상에서 하는 준비하고 하는 일을 하면서 주로 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배가 안 고프고 식욕도 떨어질 수도 있는데 걷다 보면 배도 고파지고 식생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쌀나무** : 친구랑 자주 걷는 편. 시내에서 바다까지 걸으면 4,5키로 정도 되는데 걸으면서 마음에 있던 진솔한 얘기도 하게 되어 좋음. 저는 시골에 살아서 버스가 끊기면 택시 타기 부담스러우니까 걸어서 가봤는데 생각보다 걸을 만 했음.

30분에서 1시간 걷는 동안은 핸드폰을 하지 않고 생각에 집중할 수도 있고 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함. 핸드폰 요금 아끼려고 데이터 제일 적게 500메가로 줄여서 쓰기도 했는데 주변에서는 얼마나 아끼려고 그러냐는 소리도 들었지만 의외로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많이 줄고 그 대신 주위 환경이나 버스에서 아이들의 표정 등을 관찰하는 시간이 늘어났음. 또 책을 많이 사는데 헌책방을 자주 이용하는 편임. 헌책도 자원의 순환이기도 하고, 기업형 헌책방이 할 수 없는 역할을 개인 책방이 하고 있어서 지역 자료 같은 걸 유지할 수 있고, 긴 역사를 봤을 때도 그런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듦. 한국에서는 가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

- **아풍** : 마을에서 연극모임을 하고 있음. 코로나때문에 프로그램들이 비대면이나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욕구때문에 시작하게 되었고. 연극연습을 하면서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면서 힘이 많이 나서 활동 시작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음. 코로나가 사람들을 찢어 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규모 마을활동이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됨. 내적 기준이 높은 편이라 아마추어라는 상태가 불안한 사람이었는데 아마추어로의 연극활동을 하면서는 내적 기준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바뀌는 것 같음. 아마추어로 활동하는 게 이렇게 마음 편하고 소중하고 즐거울 수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음.

## 무업기간 지역에 살면서 필요로 하는 것?

- **다원** : 서울에 있으면서는 기껏 볼 수 있는 자연이 가로수 뿐이었는데 지역에서는 계절의 변화 시간의 흐름을 자연의 풍경을 통해 온몸으로 느낄 때가 많음. 백수생활을 하며 사회와 동떨어진 느낌이 많이 들지만 풍경을 보면서는 나도 자연의 일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음. 무업기간에는 성취감이나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음. 백수라는 상황이 사회적인정을 받기 어렵고 외부 관계와 위축되기 쉬운데. 니트컴퍼니 활동을 하면서는 재미있고 성취감도 컸음.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함.
- **포도** :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함. 도서관은 무료로 갈 수 있지만 조용히 해야 하는 압박이 느껴져서 카페 같은 곳을 더 좋아하는데 비용적 부담이

있음. 자유롭게 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를 많이 느낌. 진주는 현재 청년을 위한 공간이 없고 창업지원센터가 있긴 하지만 신청하는 접근성이 낮은 편임

- **쌀나무** :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데 도서관에서 컴퓨터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공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 이용이 어렵고 카페는 비용이 들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또 지역에 청년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많을 것 같은데 모아 놓은 곳이 없다 보니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음. 능동적으로 찾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지역 특성상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고 홍보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음.
- **비누** : 지역에 많이 없는데 마음 챙김 프로그램임. 일반 취미 클래스나 교육 프로그램은 많은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없다고 생각함. 서울에서 지낼 때 보다 충주 내려와 지내는 게 몸도 비용도 편의가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마음이 오히려 어렵고 작은 지역사회라 비교의식이 많이 생겨서 멘탈이나 마음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음.
- **조기** : 공간과 기회가 필요함, 서귀포시에 거주 중인데 인프라가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뭘 배우려고 해도 접근성이 낮아서 기회가 없다고 느껴짐. 또한 시청각적으로 자극을 받고 영감을 받고 싶은데 자연을 느낄 수는 있지만, 도시의 편집샵이나 대형 서점에서의 영감을 받고 싶은데 그런 자극이 많이 없는 것 같음.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서 태풍이나 그런 게 오면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음.
- **벤자민** : 우리가 이렇게 공론장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 기회도 없는 백수들을 위해 카페든 어디든 온라인으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음.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혼자 작업 하다 가도 다른 사람들은 뭐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음.
- **아풍** : 청년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하는 것이 많은데. 반기, 분기 등 장기 운영 하는게 있으면 서로 관계도 형성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생적 커뮤니티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데이라 아쉬움.